

“어른들만 투표 하나요, 우리도 직접 대통령 뽑아요”

전국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 오늘 제21대 대선 모의 투표

지역 청소년 유권자 27만여명 대상 전국 30곳 투표소, 광주·전남 7곳 투표 종료 4시간 후 당선자 발표 당선인과 동시에 대통령에 전달

“어른들만 대통령 선거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아요.”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제21대 대통령 청소년 모의 투표’가 3일 전국 30곳, 광주·전남에서는 7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청소년 모의 투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청소년 스스로 후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일 청소년 모의 투표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비유권자 청소년 27만여명을 대상으로 7곳의 투표소와 5곳의 개표소가 운영된다.

올해 모의 투표의 경우 광주 13만 613명, 전남 14만 1,658명 등이 투표 대상자다.

광주 투표소는 △동구(청소년 삶 디자인센터 앞) △서구(마재근린공원) △북구(일곡사거리)에 설치되고 개표는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광주YMCA에서 진행된다.

전남의 경우 전남 서부권 1개소(목포)와 전남 동부권 3개소(여수·순천·광양)에 투표소가 마련된다.

순천지역 투표소는 조례동 국민은행 사거리에 마련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투표가 진행된다. 오후 8시께 순천YMCA로 옮겨진 투표함은 7명의 청소년을 포함한 10여명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용지 하나하나 수 개표할 예정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제21대 대통령 청소년 모의 투표’ 온라인 선거인단은 전국 25,000명을 넘어섰으며 광주 1,000명, 전남 1,200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번 청소년 모의 투표는 2007년 6월 5일생 이후 출생자인 만 9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모의 투표에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모의 투표 플랫폼에 접속해 온라인 선거인단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

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 투표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오프라인 투표를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각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 신분증(학생증·청소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신원 확인을 거쳐 7명의 후보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 내부에 마련된 기표용기를 이용해 투표를 마치고 한번 접은 뒤 투표함에 넣으면 모의 투표가 완료된다.

올해 21대 대통령 청소년 모의 투표의 개표는 모든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부터 전국 38곳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수 개표로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투표 결과는 전산을 활용해 개표 시작 직후 후보별 득표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결과는 각 투표소에서 수거된 투표용지를 지역 개표소에서 확인 후 YMCA 전국연맹에서 통계를 발표한다.

제21대 대통령 청소년 모의 투표 당선자의 윤곽은 3일 오후 11시께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선출된 당선인에게는 상징적인 당선증이 전달된다.

제21대 대선 당선인과 청소년 모의 투표 당선인이 같을 경우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당선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낙선자일 경우에는 후보와 협의 후 청소년이 뽑은 당선증이 전달될 예정이다.

청소년 모의 투표운동본부는 이번 모의 투표를 통해 미래 유권자들이 직접 정치 참여를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청소년 모의 투표운동본부는 청소년 2개 분야 13개 정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국가 청소년 예산 복원, 청소년정책 종합 독립부처 설치, 학생 인권법 제정,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참가 의무화,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등이다.

이윤기 광주YMCA 사무총장은 “청소년 모의 투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청소년 스스로 후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의 현장이다”며 “향후 법제화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정치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투표지 분류기 이상 없어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장용기 광주시선관위원장과 개표종사자 등이 광주여대 체육관에 마련된 광산구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의대정원 동결에도...6월 모평 지원자 전년보다 늘어

광주 1만6671명·전남 1만3219명

오는 4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광주·전남지역 수험생 3만여명이 응시한다.

2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응시생은 2만 9,890명으로 전년보다 1,824명(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광주는 지난해 1만 6,111명에서 올해 1만 6,671명으로 560명(3.4%) 증가했다.

이중 고3 재학생은 작년보다 593명 증가한 1만 4,698명, ‘졸업생 등’ (졸업생+검정고시생)

은 33명 감소한 1,973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1만 3,219명이 응시해 작년보다 1,264명(10.6%) 늘었다.

고3 재학생은 전년보다 918명 증가한 1만 2,680명, 졸업생 등은 346명 늘어난 539명이었

다. 이는 출생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2007년 ‘황금돼지띠’ 출생아가 고3이 되면서 지원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올해는 의대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음에도 의대 진학 선호 현상이 계속되면서 본 수능에 N수생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에서 6월 모평에 응시하는 N수생이 작년보다 줄어든데에는 서울 입시학원에서 모평을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작년보다 의대 모집인원이 줄었으나 올 수능에서는 작년과 같이 N수생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의평가는 오는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9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1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모의평가는 11월 13일에 실시될 수능과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모두 같다.

최환준 기자

전남대 ‘인문사회 융합인재사업’ 주관대학 선정

전남대학교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패스파인더형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

전남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에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체제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사회 갈등에 대응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3년간

87억원을 지원받는다.

전남대는 광운대, 공주대, 부산대, 홍익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디지털 경제’ 분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문화사회과학대학 박석강 교수가 사업단장을 맡아 사업을 총괄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수준별 단기·집중이수형 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학생들이 자신의

소속 전공과 관계없이 다양한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로 탐색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대학 내·대학 간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개편해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개방적인 학사 운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참여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원들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육 인프라를 공유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최환준 기자

기사제보받습니다. jndnnews@naver.com



그린 알로에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